

참된 생명에 이르는 지혜 8

I. 서론

첫 번째 잠언 모음집(1-9장)은 여호와 경외와 ()을 전달하는 주인공으로 ‘지혜’를 의인화하여 소개하였다. 두 번째 모음집(10:1-22:16)은 지혜의 보호 기능 아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지혜 여인과 더불어 한 집에 살고 있는 존재로 부각된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혜’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고 하는 원대한 가르침을 받고 있다.

세 번째 모음집은 22장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지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혜자가 말하는 ‘30가지의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해주고 있다. 더 나아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과 보응을 생각하며 마지막까지 미래에 대한 ()을 포기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24장 23절부터는 네 번째 모음집이 이어지며 공동체 안에서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의인으로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것과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교훈하고 있다.

II. 본문 : 두 번째 모음집,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잠언 10:1-22:16)

본장은 10장부터 시작되었던 본서의 두 번째 모음집(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의 마지막 부분(1-16절)이 서술되고 있는 동시에 세 번째 모음집(22:17-24:22)의 서론 및 첫 부분(17-29절)이 맞물려 나오는 부분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생각해야 할 사실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종합하고 있는 동시에, 계속되는 세 번째 모음집의 주된 관심사인 ‘참된 가치’에 대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지혜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교훈을 듣는 사람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식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보다 ()를 드러내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상황들, 곧 ‘약자와의 관계’, ‘원한을 가진 자들과의 관계’, ‘보종’, ‘탐심’ 등과 같이 대외적인 관계 속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최종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22상. 가치 있는 선택을 향한 추구(잠 22:1-16)

1) 바른 ()을 추구함(22:1-16)

본 단락은 바로 앞부분(21:13-31)과 연결되어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선택에 대해 다루고 있다. 선택에 직면했을 때는, ❶보다 ()이고, ❷보다 ()이고, ❸보다 이웃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런 바른 선택의 지혜를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 부유함보다 귀한 것들(1-7)

❶“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1절)
**부를 무시하는 말은 아니며, 상대적으로 명예와 은총이 부보다 낫다는 뜻이다. 예기치 않게 속히 사라질 수 있는 부에만 집착하는 삶을 떠나야 하며 선한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명예와 은총을 누리게 된다. 더 나아가 ()는 부와 명예 모두를 가져다준다.

❷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도록 지으신 분은 여호와임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닌 존재들이다. 서로의 존엄성을 부인한 채 적대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서로를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❸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함 /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음

**슬기로운 자는 (), 도덕적 ()을 갖고 주의 깊게 행동하며, 유혹을 피하고 죄악에 동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죄와 유혹을 피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어 죄인줄도 모르고 실수를 범하거나 위험을 대비하지 못해 생명을 잃기도 한다.

❹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 재물과 영광과 생명임(영육간의 풍성한 은혜)

❺패역한 자의 길 → ()와 올무가 있음 /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함

**“패역한 자”란 완고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이들에게는 ‘가시’와 ‘올무’ 즉, 고통과 고난 그리고 돌연히 다가오는 역경이 있다. 그러므로 영혼을 지키는 자(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는 죄악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멀리한다.

❻“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6절)

**“마땅히 행할 길”이란 각자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잠재력, 본성, 기질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아이가 하나님께 ()하는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이다.

❼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함 / 빛진 자는 채주(돈을 빌려준 자)의 종이 됨

(2) 언행과 심판(8-16)

인생의 진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다. 악을 뿌리면 재앙을 선한 행동은 복을 불러온다. 거만한 자(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는 자)를 쫓아내면 문제와 분쟁이 사라지고, 정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는 그의 말과 행동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될 정도로 () 있는 자가 된다.

- ①악을 뿌리는 자 → 재앙을 거둬,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할 것임
- ②선한 눈을 가진 자 → 복을 받을 것임,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기 때문임
- ③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침
- ④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음,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됨
- ⑤“여호와와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12절)

**여호와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 반면에 사악한 사람(신뢰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 ⑥게으른 자 →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말함

**게으른 자는 사자의 먹이가 될까 봐 집 밖을 나가 일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려는 핑계일 뿐이다.

- ⑦음녀의 입 → 깊은 함정, 여호와와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짐 : ()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

- ⑧아이의 마음 → 미련한 것이 얹혔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냄

**어린 아이는 고집과 배우지 못함으로 인해 어리석어 자신을 묶어놓을 때가 있다. 훈육과 교육을 위해 징계가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이다.

- ⑨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자, ‘부자에게 주는 자’(뇌물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더 가난해 질 수밖에 없다. ()는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자이다.

III. 본문 : 세 번째 모음집,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잠언 22:17-24:22)

22하. 주의해야 할 사실들(잠 22:17-29)

1) 서론(22:17-21)

- (1) 귀를 기울이라(17-21)

‘귀를 기울이라’를 직역하면 ‘귀를 활짝 열어라’이다. 지금부터 선포될 지혜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해서 들으라는 권면이다. 이렇게 들은 지혜를 ‘네 속에 보존’ 하라는 것은 습득한 지혜를 몸의 일부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다. 솔로몬은 청중들에게 지혜를 전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그는 지혜를 통해 듣는 자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기를 원했다. 그는 30가지의 잠언 말씀을 통해 듣는 자들이 깨닫고 진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는 지혜를 주고 있다.

- 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돌지어다”(17절)
- ②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네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18절)
- ③ 이것을 말함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기 위함임
- ④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위해 기록했음
- ⑤ 자신이 쓴 것(30가지의 가르침)을 깨닫고 듣는 이가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기 위함임

(2) 관계에 있어서의 교훈과 권고(22:22-29)

교훈①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실 것임(22-23)
 ***힘과 권력으로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것은 유혹이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세상의 법을 통해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교훈② 노를 품는 자와 상종하지 말고 울분한 자(독기를 품은 자)와 동행하지 말라(24-25)
 ***‘노를 품는 자’는 잠시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화가 나 있는 사람이다. ‘울분한 자’도 다른 사람을 해하고자 독기를 품은 자이다. 이런 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❶언제 폭발할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기 때문이며, ❷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훈③ 남의 손을 잡지 말라. 보증을 서지 말라(26-27)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침상도 빼앗길 수 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맺은 후 기쁨의 상징으로 서로 손뼉을 친다는 뜻이다. 보증을 서는 것은 스스로 ()에 걸려드는 일이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이다. 보증을 섰다가 갚을 것이 없다면 침상(기초 생활권)이 빼앗기는 비참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훈④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경계석)을 옮기지 말라(28)
 ***이스라엘에서 각 사람이 소유한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었다.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욕심을 갖고 남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조상이 물려준 땅에 만족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만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신앙고백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것은 과한 ()을 부리지 말고 주어진 것에 ()하며 살라는 권면이다.

교훈⑤ 자기가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왕 앞에 서리라(29)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왕이 그 실력을 인정할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실하게 일해 자신이 맡은 일에 능숙해지는 것도 지혜의 한 부분이다. 지혜는 신앙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23. 탐욕에 대한 경계(잠 23:1-35)

본장에는 30가지의 가르침 중 6-18번째 가르침이 나오고 있다. 1-19절까지는 세속적인 복을 기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는 내용이, 20-35절은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임으로 신앙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것, 동시에 온전한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을 소유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1) 소망을 잃지 말라(23:1-19)

본 단락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악인의 유혹에 빠져 헛된 세상의 재물을 추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이 땅에서 충성된 자로 봉사함으로써 얻게 되는 궁극적인 소망을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❶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함과 ❷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야 함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1)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지 말라(1-8)

교훈⑥ 관원에게 초대되었을 때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주의하라(1-3)

a. 목에 칼을 두라(식욕을 자제하라)

b.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높은 사람과 식사할 때는 그를 의식하고 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 함과 동시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분별하여야 한다. 그 자리는 시험하는 자리일 수도 있고, 무언가 대가를 바라며 음식을 차린 자리일 수도 있다. 음식에 정신이 팔려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지 말고 때와 장소를 잘 구별해야 한다.

교훈⑦ 부자가 되려는 지나친 욕심을 버리라(4-5)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감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은 ()하는 것이다. 부를 얻는 것으로 그 자리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❶ 부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새처럼 허망한 것이고, ❷ 부를 얻는다 해도 영원히 지킬 수 없으며, ❸ 선한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교훈⑧ 악한 눈이 있는 자(자기만 아는 자)와 음식을 먹지 말라(6-8)

a. 그가 너와 함께 먹고 마셔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음

b. 조금 먹은 것도 토할 것임,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되리라

******‘악한 눈’은 ‘선한 눈’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선하다는 것은 이웃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

을 말하며,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자기만 생각하는 () 사람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음식에는 대가가 따른다. 서로 좋은 대화를 주고받아도 진실함이 결여되어 있기에 불편함만 불러올 뿐이다.

(2) 신앙의 자세를 굳건히 하라(9-11)

교훈⑨ 미련한 자를 가르치지 말라(9)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

****미련한 자는 그의 귀에 대고 말을 해 줘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말한 사람의 지혜를 업신여기며 좋은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더 미워할 수 있다.**

교훈⑩ 고아의 소유를 빼앗지 말라(10-11)

a.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라

b. 하나님이 그들(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길 것임

****이 말씀은 22:28과 거의 비슷하다. ‘옛 지계석’은 여러 세대를 거쳐 전수되어 내려온 땅의 범위를 정의하는 것이다.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조상이 물려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는 욕심으로 도둑질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특히 ‘고아들의 발을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들의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는 말씀은 당시 사회에서 고아들이 소유한 것을 빼앗는 것이 가장 손쉬운 착취의 방법이었고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사회의 가장 연약한 자들의 구속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길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자들에게 주는 매우 강력한 경고이다.**

(3) 지혜에 대한 관심과 훈련(12-18)

교훈⑪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12)

****‘착심하다’는 말은 ‘마음을 붙인다’라는 뜻으로 훈계에 마음을 붙인다. 즉, 끊임없는 마음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은 사람에게 분별력과 이해력을 더하는 지식이다.**

교훈⑫ 자녀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13-14)

채찍으로 그를 때려도 죽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채찍으로 때리면 구원을 받을 것임

****자녀를 훈계하지 않는 것은 자녀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자녀를 사랑으로 훈계할 때 언젠가는 인격적이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징계가 자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죽이는 것이다.**

교훈⑬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고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할 것임(15-16)

****지혜자는 자녀의 지혜를 자신의 기쁨과 연관시키며 자녀로 하여금 지혜로워지기를 독려한다. 더 나아가 자녀가 정직을 말할 때, 즉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부모는 유쾌한 삶, 신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교훈⑭ 죄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17-18)

네 장래가 있겠고(미래가 있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 것인가? 바람직한 부러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릇된 부러움은 죄인의 행동에 대한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죄악된 세계, 악인의 행동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장래의 () (복된 미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2) 참된 경건의 추구(23:19-35)

본 단락은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는 동시에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실상을 소개하며 하나님 백성의 참된 경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다. 특별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가르침에 주의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보고 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참 효도의 모습(19-25)

교훈⑮ 바른 길로 가라(19-21)

“내 아들이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19절)

a. 술을 즐기고 고기를 탐하는 자를 멀리하라

b. 잠자기를 즐겨 하는 사람(게으른 사람)과 사귀지 말라

****‘즐기다’라는 말은 ‘중독되다’라는 뜻이다. ‘()’라는 말은 ‘절제하지 못하다’라는 뜻이다. 중독과 무절제한은 우리의 삶을 방탕과 파멸로 이끈다.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게으른 자를 말한다. 이들은 ‘헤어진 옷’을 입게 되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모든 가난이 나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방탕과 (), 게으름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자들과 함께 있다 보면 닮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혜를 가까이 하라는 것이다.**

교훈⑯ 부모의 가르침에 주의하라(22-25)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23절)

a. 의인의 아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해 즐거울 것임

b.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지혜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며,**

이러한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

(2)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26-35)

교훈⑦ 음행을 저지르지 말라(26-28)

“내 아들이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26절)

- a. 음녀는 깊은 구덩이,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임
- b.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여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함

***지혜자는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며 행동으로 옮기기를 권면한다. 그 중의 하나가 음녀를 멀리하라는 것이다. 음녀의 유혹은 깊은 구덩이와 같다. 쉽게 빠져 나올 수 없다. 또한, ‘좁은 함정’(만족할 수 없는 우물)이다. 이들은 매복한 강도와 같이 은밀하게 삼킬 자를 찾는다. 유혹에 넘어간 자들이 많은 공동체는 영적, 윤리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 죄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빠지면 멈추기가 쉽지 않다.

교훈⑧ 술 취하지 말 것(29-35)

- a.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붉은 눈이 술에 잠긴 자에게 있음
- b. 술을 보지도 말라
- c. 술이 뱀이나 독사 같이 물 것이라
- d.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임
- e.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임
- f. 감각이 둔해짐
- g. 술을 깨고 나면 다시 술을 찾을 것임

***이 단락은 성경에서 술 취함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당면한 어려움을 이겨보고자 술을 마실 때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취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갈등과 분쟁, 상처와 붉은 눈(충혈된 눈)만 남을 뿐이다. 그러므로 술에는 ()도 주지 말라는 것이다.

24. 지혜에 대한 끝없는 추구(잠 24:1-34)

본장에는 30가지의 가르침 중 19-30번째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으며 셋째 대목의 부록이 첨가되어 있다. 지혜자는 앞장의 마지막 부분(23:27-35)에서 다루었던 쾌락주의자들의 실상에 대한 결론을 먼저 서술한 다음, 의인들로 하여금 악인들의 외적인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지혜를 따라 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후반부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유의해야 할 네 가지에 대해 말하는데, ❶양심에 입각하여 공명정대한 판단을 내리라(23-26절), ❷장래를 위해 미리 준비하라(27절), ❸ 위증 또는 공공연한 () (28-29절), ❹() (30-34절)는 것이다.

1) 영적으로 항상 무장하라(24:1-22)

본 단락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로써 악인과의 영적인 투쟁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동시에 마지막에 있을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라고 권고한다. 이는 지

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들이 악인의 현실적인 기세에 짓눌려 하나님의 지혜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을 구조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❶악인을 결코 부러워하지 말 것 (1-2절) ❷지혜를 추구하는 이들이 인식해야 할 사실들(3-12절) ❸하나님 말씀의 중요성(13-14절) ❹악인에 대한 자세(15-20절) ❺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것(21-22절)

(1) 악인을 이길 수 있는 지혜(1-12)

교훈⑨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1-2)

a.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

b.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입술은 재앙을 말함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삶으로 인해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 살다보면 악인을 만날 수도 있고 함께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라’는 것은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며 의도적으로 그들을 찾아가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의 생각과 말이 ()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교훈⑩ 지혜를 간직하라(3-4)

a.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됨

b.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짐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어떠한가 하는가를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이다. 여기서 집은 가정을 말하는데, 이상적인 가정을 세우는 토대가 ()가 되어야 하며, () (슬기롭게 살아가는 통찰력)로 세워져가며, 집 안의 여러 방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 즉 행복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교훈⑪ 지혜가 제공하는 힘(5-6)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이느니라”(5-6절)

***지혜는 힘(무력)보다 강하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는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진다. 지혜는 힘과 ()일 뿐만 아니라, 모든 모략의 근원이기도 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전쟁을 해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과 지략으로 한다.

교훈⑫ 지혜의 탁월함(7)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7절)

***‘미련한 자’는 지혜의 필요성을 모르는 자이다. 이런 자는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성문’은 일상적인 비즈니스와 소송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가 없으므로 이곳에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교훈㉓ 악인의 특성(8-9)

- a. 악행하기를 피하는 자를 사악한 자라 함
- b.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임,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음

****악을 기획하는 사람은 잠시 동안 수완이 있는 사람으로, 추진력이 있는 사람으로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된다. 미련한 자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이며, 거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선한 의도까지도 왜곡하기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교훈㉔ 환난 날에 낙심치 말라(10)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10절)

****사람의 진가는 환난 날에 드러난다. 환난 때에 낙담하는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자다. 그러므로 평소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추구할 때, 환난을 이겨내고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교훈㉕ 타인의 환난에 관하여(11-12)

- a.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해야 함
- b.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심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는 ()을 당한 사람을 말한다. 이웃의 억울한 죽음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신다.**

(2) 의인의 영적, 정신적 무장(13-22)**교훈㉖ 지혜가 주는 유익(13-14)**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있고 ()이 끊어지지 않음
“내 아들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13절)

****지혜를 얻는 것은 꿀의 단맛을 즐기는 것과 같다. 또한 지혜로 인해 장래(종말)가 두렵지 않고, 절대 끊어지지 않을 소망이 생긴다. 지혜가 이처럼 귀하고 좋은 것이다.**

교훈㉗ 악한 자를 경고함(15-16)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16절)

****악인들에게 의인을 해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악인이 절대 의인을 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❶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이 그들을 강하게 하시어 계속해서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❷악인은 ()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의인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재앙을 주어 없**

드리지게 하신다.

교훈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라(17-18)

a.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질 때 마음에 즐거워하지 말라

b.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지 않으심,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움

****원수들이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이기 때문이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그들의 고통을 보며 자신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며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또한, 나 자신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으로 지혜를 구해야 한다.

교훈㉕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19-20)

a. 행악자들에게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b.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행악자들에게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도 언젠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인의 삶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아야 한다. 악인은 장래도 없고 등불(생명)도 없다.

교훈㉖ 하나님을 경외할 것(21-22)

“내 아들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들의 멸망을 누가 알라”(21-22절)

****하늘의 권세이신 여호와와 세상의 권세인 왕을 경외하라**고 한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 대해 반역하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반역자들과 함께 음모를 꾸미는 것을 왕이 알면 화를 면할 길이 없으며, ‘그 들의 멸망’ 하나님과 왕이 반역자들에게 내리는 멸망은 얼마나 혹독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IV. 본문 : 네 번째 모음집(잠언 24장 23-34)

1) 후회 없는 삶을 추구하라(24:23-34)

본 단락은 본서의 네 번째 모음집으로 익명의 지혜자에 의해 기록되었다. 이 부분은 앞서 진술된 세 번째 모음집(22:17-24:22)의 결론적 종합인 동시에, 뒤이어 등장하는 다섯 번째 모음집(25-29장)의 서론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단락의 내용은 명백한 두 가지 사실이 이중적으로 맞물려 있는데, ❶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 주목해야 할 마음 자세, ❷ 그에 합당한 행동 양식이다.

본 단락의 내용은 앞서 이야기한 ‘30가지 가르침’과 유사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정의가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1) 정의로운 판결(23-26)

①재판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않음

**재판에서 ‘낯을 보아 주는 것’은 편파적이고 불공평하다는 뜻이다. 재판관들이 공정하지 않은 것은 죄이다. 사회 질서와 기준을 흔들기 때문이다.

②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 →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임,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임

③그러나 악인을 견책하는 자 → 기쁨을 얻을 것임, 좋은 복을 받을 것임

**악인을 옳다고 하는 것은 사회 질서와 올바른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들은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반면 악인을 견책(죄 값을 묻는 것)하는 자는 하나님과 백성의 ‘좋은 복’(최상급의 표현)을 받게 될 것이다.

④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음

**‘적당한 말’이란 정직하고 진솔한 말이다. 이런 대답은 입맞춤(기쁨)과 같다.

(2) 각 개인의 의무(27-29)

①삶의 ()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함

②근거 없이 이웃에게 해로운 증언을 하지 말아야 함

③“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29절)

**삶에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의 순서를 정하고 그에 따라 나아가라는 권면이다. 또한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않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각 개인의 ()한 삶의 모습이다. 더 나아가 악으로 악을 갚는 사회는 보복과 갈등의 사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의 고리를 끊는 자들이 되기 원하신다.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3) 게으른 자의 기업(30-34)

①지혜자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 깨달은 것이 있음

②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음

③그것을 보고 생각이 깊었고 훈계를 받았음

④“네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니”(33절)

⑤“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34절)

**지혜자는 모든 상황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 자이다. 게으른 자 자체에게서는 배울 것은 없지만, 그의 삶을 보며 게으르면 ()이 강도 같이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